

무주, 전 군민의 치매파트너 도전

무주우체국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선정... 기관 및 학교 등 확대 방침

무주군이 치매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계획을 밝힌 가운데 무주우체국이 1호가 됐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으로 단체 구성원들이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하고 단체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해 치매극복 활동에 기여한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 8월 관내 소재 단체들을 대상으로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동참 의사를 밝혔던 무

주우체국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우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치매의 종류와 주요 증상, 치매 단계별 증상, △치매어르신을 대하는 자세와 의사소통법, △치매파트너 소개, 치매파트너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황영내 팀장은 "우리 군은 올해 처음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사업을 시작했고 무주우체국이 1호 현판을 달게 된 것"이라며 "주민들의 방문이 잦고

또 활발하게 정보교류가 이뤄지는 단체라는 점에서 전 군민이 함께 하는 치매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단체는 물론, 기관 및 기업, 학교, 도서관, 봉사모임 등으로 치매극복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치매극복 참여 신청 및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팀(063-320-8607)으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역할 다할 것”

장수서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열려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가 식이 17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주관하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청춘기타와 라인댄스 팀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증진과 소외된 이웃에 헌신해온 사회복지 유공자 9명에 대한 표창과 김진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기념사, 주요내빈 축사, 윤리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김진 회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비롯해 장수군민 모두가 참여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길 바란다."며, "포용적 복지시대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서로 소통하며 변화와 발전을 통하여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1999년 9월 7일이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전국적인 축하행사가 시작되었으며, 장수군도 이에 맞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17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진안군, 아토피 안심학교 자연숲 체험캠프 ‘인기’

초등학생 200여명 참여

진안군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을 위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인 진안초, 장승초, 진안중앙 초등학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자연숲 체험캠프를 진행한다.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아토피 걱정 뚫! 재미있는 미술 레크레이션'과 '아토피 마왕을 잡아라'의 자연숲 그린환경놀

이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참여와 흥미를 높였다. 아토피송 행복바이러스 율동과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진안고원 치유숲 간호사와 영양사의 알레르기질환 예방교육과 건강퀴즈 OX 맞추기, 유기농 친환경 재료로 만든 동글동글 영양간단 빗기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김금주 보건소장은 "앞으로 진안고원 치유숲, 학교 등과 협의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현재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총 27개소의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 시즌권 특가 판매

23일부터 1차 구입 시 최대 58% 할인

부영그룹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19~2020 동계시즌을 맞아 23일부터 스키 시즌권 1차 특가 판매에 들어간다.

스키 시즌권 1차 특가 판매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 간 진행된다. 이후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은 2차 특가로 판매가 진행되고, 11월 1일부터 폐장일까지는 정상금액으로 판매된다. 통합 시즌권은 스키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시즌 중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1차 특가 판매 기간에 시즌권을 구입하는 얼리버드 스키어들은 정상가 대비 할인은 최대 58%, 일반고객은 최대 37%까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시즌권을 연속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만 5천원 까지 추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직장동료끼리 뭉치면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가족 3인 이상이 패밀리권 구입 시 총 금액의 10%가 할인되며, 직장동료 3인 이상 시즌권 구입 시 인당 3

만원 씩 추가 할인이 된다. 단 직장동료 할인의 경우 가족 할인이거나, 시즌권 연속 구입 할인과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

시즌권 구매고객에게는 객실, 장비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시즌권 구입 시 가족·국민호텔·유스호텔 주중 객실 할인 우대권 4매가 주어진다.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가족호텔을 리모델링 한 후 첫 시즌인 만큼, 쾌적한 새 객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세인트 휴 사우나 30% 할인권 5매, 스키/보드 장비 대여 50% 할인 4인, 시즌 라커 구매시 20% 할인도 함께 주어진다. 스키 시즌이 끝난 뒤 쓸 수 있는 관광콘도라 50% 할인권 4매도 제공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대표 스키장 무주덕유산리조트는 6.1km의 국내 최장 슬로프를 비롯해 34면의 다양한 난이도의 슬로프와 최고 경사도 70%를 자랑하는 레이더스 슬로프도 보유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군의회 여성의원

어린이집 원장과 간담회

무주군의회 여성의원(이혜양, 문은영 의원)들이 지난 16일 관내 9개 어린이집 원장들과 어린이집 급·간식비지원 등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2009년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금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6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도 14개 시·군 중 무주군을 제외한 6개 시·군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혜양 의원과 문은영 의원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의 몫이지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급·간식비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무주군에 함께 촉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무주군이 14일부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 및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0월 14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30명을 편성했으며 관내 등산로와 입도 등 60곳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읍면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버섯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관공업체 또는 산약회·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입도 변이나 산길 주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관광버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김승준 산림보호 팀장은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약초는 주인이 없으니 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주도하는 한편, 산림자원 보호를 통해 지역의 자산을 키워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귀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1차 심사 통과

전북 유일... 선순환 구조 운영 높은 평가

진안군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춘)가 최근 제18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1차 심사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1차 심사에 통과되어 전북을 넘어 전국에 잔잔한 자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총 402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응모했으며, 1차 심사에서 주민자치 등 5개 분야 113개가 선정되었다.

인구가 3천명이 채 안 되는 부귀면의 주민자치회는 특별함이 있다. 지난해부터 부귀면 자치위원들은 공무원에게 의지하지 않는 위원회가 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결의했다.

지난 4월 20일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천서 박영덕 저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치는 공무원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배웠다.

또한 공부하는 자치위원이 되기 위해 자치문고도 운영하고 있다. 자치

위원 1인당 1권씩 1주일간 책을 대여해주고 있으며, 일 년에 한 번씩 자치시험도 치른다.

특히 면민들이 평소 애용하는 거석공원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맡아 관리하면서 행정에서 지급한 인건비는 다시 자치사업 예산으로 편입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해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박영춘 위원장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자치위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자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치의 꽃이 활짝 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구 면장은 "우리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올려 기쁘며, 전북의 자란을 넘어 전국에서 선도하는 자치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